

원칙 · 14

저희가 하지 않는 것

등급컷·배치표·개별 학과 합격선을 내지 않습니다. 자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— 있는데 안 냅니다. 그 까닭을 숫자로 적었습니다.

자료를 고르실 때 · 한 번

하나 — 합격선은 선이 아닙니다

저희가 센 것	무엇을 뜻하나
70%컷과 100%컷의 차이 중앙 0.22등급 · 표본 911	가운데는 붙어 있는데 1등급 넘게 벌어지는 자리가 16%, 2등급 넘게 벌어지는 자리가 5%입니다. 「합격선」 아래로 한참 내려가서 붙은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
50%컷과 70%컷의 차이 중앙 0.09등급 · 표본 6,775	어느 컷을 보느냐로 숫자가 달라집니다. 0.3등급 넘게 갈리는 자리가 16%입니다
같은 학과, 교과와 학종 짝 1,845개	51%가 0.5등급 넘게 갈립니다. 같은 과인데 문이 다르면 숫자가 다릅니다
충원율 중앙 75% · 표본 10,490	33%는 모집인원보다 많이 들고, 17%는 한 명도 안 돕니다. 「작년 컷」은 돌기 전 숫자입니다

둘 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

- ☐ 분포와 구조를 냅니다 — 개별 학과 값은 안 냅니다
해가 바뀌어도 쓸 수 있는 것만 씁니다
- ☐ 등급컷을 예측하지 않습니다
응시자와 난이도가 만드는 숫자입니다. 시험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
- ☐ 합격 가능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
무료 자료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, 유료로도 「가능성」은 못 팝니다
- ☐ 숫자에는 표본 수와 출처를 답니다
몇 줄을 썼는지까지 적습니다
- ☐ 짐작인 자리는 「저희 판단」이라고 적습니다
확정된 것과 섞어 쓰지 않습니다

셋 — 예측을 파는 곳을 만나셨다면

- ☐ 「그 숫자는 몇 개를 센 것입니까」라고 물어보셨는가
표본을 못 밝히면 근거가 아니라 인상입니다
- ☐ 「출처가 어디입니까」라고 물어보셨는가
요강·공시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. 못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
- ☐ 「작년에 얼마나 맞았습니까」라고 물어보셨는가
맞힌 것만 보여 주는 곳이 많습니다
- ☐ 확정된 것과 예상을 갈라서 말하는가